

Hello, I'm Jay
I'm a Developing Designer



KIM JUHYUN

Hello, I'm Jay

Service Designer & Front End Developer

Phone

+8210 7578 8546

E-mail

kimjay.824@gmail.com

Web

kim-jay.com

HELLO

Hello, my name is Juhyun. I am a Service Designer and Front-End Developer. I always try to create new experiences through challenges and immersion.

I majored in Industrial Service Design at the University of Design. And I worked for a design agency in Busan for 3 years. I experienced various design tasks such as BX Design, Web Design, Package Design, and Design Consulting. And I got a Service Experience Design Engineer License for my professionalism.

Education

- 2014.03 - 2019.02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 Design University Industrial Service Design Route
 - 3.44 / 4.5

Work Experience

- 2019.02 - 2022.03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 디자인팀
 - 중기부, 수출지원, 디자인진흥원 등 국가사업 디자인 개발
 - 국가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 BX 디자인 개발, 웹디자인, 패키지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Experience

- 2018.01 - 2018.03 아이프로덕트 / 인턴십
 - 웹디자인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 제안서 디자인
- 2017.06 - 2017.07 핸드메이드샘 / 인턴십
 - 캐릭터 디자인 및 관광상품 디자인
 - 부산 관광엽서 디자인 및 제작
 - 페이퍼토이 디자인 및 제작
- 2016.12 - 2017.01 디자인엑스투 / 인턴십
 - 캐릭터 디자인 및 관광상품 디자인
 - 부산 대표 캐릭터 어묵기 디자인개발
 - 부산 관광 포스터 디자인

Skills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Figma

- 사진 편집 및 보정
- 그래픽 디자인 및 아트웍 디자인
- UXUI 디자인 및 화면 설계

HTML / CSS
JavaScript
jQuery
React

- 웹화면 설계 및 구축
-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활용한 동적화면 구축
- 제이쿼리 플러그인 활용
- 리엑트 활용 웹앱 구축 및 설계

Hello, I'm Jay

Service Designer & Front End Developer

Phone +8210 7578 8546
E-mail kimjay.824@gmail.com
Web kim-jay.com

Vocational Training

- 2022.05 - 2022.11 [디지털컨버전스] 리엑트(React)활용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 22-1 그린컴퓨터아카데미
 - 디지털기술기반의 다양한 기기, 네트워크,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융합 서비스를 창출
 - 기기, 네트워크,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 운용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능, 기술에 관한 능력을 함양.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
 - 형상관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능력을 함양.
 - 현대적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표준 자바스크립트(ECMAScript), Ajax 등을 활용하여 모던 웹 개발 능력을 함양.
 - 리엑트(React)를 활용하여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을 함양.
 - 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사용하여 응용SW의 기능에 적합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며, 제어하는 능력을 함양.

Work Experience

- 2022.11 서비스 · 경험디자인 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 2018.08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부산지방경찰청
- 2018.06. GTQ그래픽기술자격 한국생산성본부
- 2008.01 워드프로세서 2급 대한상공회의소

My Story

From Designer To Developer

디자이너로 입사하고 처음 웹 디자인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디자인 시안 작업 후 개발은 외부업체로 넘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웹 개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업체와의 소통의 한계를 느껴 내부 개발 인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통과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디자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동작하는 개발 및 구현과정까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회사 내 개발자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과 의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은 저에게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동작 구현을 위한 기능적인 역량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낀 저는, 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웹 프론트엔드 개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디자인대학에서 서비스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수업 중 진행했던 프로젝트중 하나인 '프라이م 화이트니스 산학연계 팀 프로젝트'는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총 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라이م 화이트니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및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중 하나인 더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점 발굴부터 개선 방향까지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의 관점에서 시작해 다양한 이슈들을 이끌어내 해결하는 과정은 서비스가 기획되고 사용자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서비스 사용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디자인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User eXperience Research입니다.

Hello, I'm Jay

Service Designer & Front End Developer

Phone +8210 7578 8546
E-mail kimjay.824@gmail.com
Web kim-jay.com

저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하며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항상 배우며 연구하는 자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웹 에이전시 사이트, 해외 디자인 커뮤니티 등에서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며, 사이드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 채팅을 통한 정보공유, 온라인강의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 및 기술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전공의 전문성을 위해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새로 신설한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해결점을 찾아가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역할이 있지만, 그 일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를 타인에게 미루지 않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 3년간 근무했던 회사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디자인회사였습니다. 소규모 회사 특성상 한 명이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만, 모든 프로젝트 결과물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이어가며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